

## 사랑과 정의의 관계: 헤겔의 인정이론\*

서 윤 호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 ◆ 국문초록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아 사랑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정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과 정의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독자적 구성원리로 파악하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도 보완적 관계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그의 독특한 인정이론의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헤겔의 인정이론’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거칠게나마 테제의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헤겔은 인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의 세 형태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각각 사랑, 정의, 연대를 그 구성원리로서 제시한다. 헤겔에게서 사랑과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듯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타당한 영역이 다를 뿐이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고,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에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친밀성의 영역이 파괴되고, 비친밀성의 영역에 사랑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친밀성과 비친밀성이 서로 중첩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경우처럼 사랑의 원리 위에 서 있거나 시민사회의 경우처럼 정의의 원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57)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리인 공동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사랑, 정의, 연대, 호네프트, 헤겔, 인정이론

## 1. 서론: 사랑과 정의의 관계

사랑과 정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는 사랑과 정의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sup>1)</sup> 이 문제는 결국 각자가 파악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이든 정의든 그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또 얼마나 다양하고 서로 다른가?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둘의 조합의 경우의 수만큼 복잡해진다.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랑과 정의의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파악해 사랑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정의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양자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헤겔의 입장은 이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다. 헤겔은 사랑과 정의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독자적 구성원리로 파악하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도 보완적 관계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그의 인정이론의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헤겔이 그의 인정이론의 구조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핵심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1) 이 글은 2018년 5월 25일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정념의 윤리학: 사랑과 정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열띤 토론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쳐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관계'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착안점으로 어떠한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개괄적인 형태로 살펴보고자 한다. 헤겔의 인정이론을 기초로 삼을 경우,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어떠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기로 하겠다.

## II.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입장: 개념의 비대화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가장 전형적인 접근방식은 서구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은 정의의 완성,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성경의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구약'의 엄격한 정의와 '신약'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절대자, 신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굳이 종교적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많이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속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속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랑은 정의의 완성'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사랑은 정의의 완성'이라는 말을 듣는다. 엄격하고 편협한 정의의 원리에 대해 부드럽고 관대한 사랑의 원리를 우위에 두는 것은 어쩌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세속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서 사랑 우위의 입장은 주로 신학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1970년대에 '정의'의 문제에 대해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간략히 스치고 지난 문제는 정의(justice)의 원리와 사랑(love)의 원리 간의 관계의 문제이다. 우선 원리상의 문제로서 정의와 사랑은 별개의 원리인지 아니면 그들 사이에 서로 보완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를 사랑과는 일단 별개의 것으로 다루려는 롤

즈(Rawls)나 프랑케나(Frankena)의 입장 등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양자 간의 연속성 내지 상보성을 인정하는 니버(Niebuhr)나 브루너(Brunner)식의 접근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사랑이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정의실현의 모티베이션(Motivation)과 결부시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 문제는 기독교의 정의관이라는 문맥 속에서 보다 깊은 논리가 요구되는 주제이다.”<sup>2)</sup>

이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논의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는 기독교의 정의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sup>3)</sup> 여기에서는 그 전체 논의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피하고, 주로 톨리히와 니버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그 핵심 주장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톨리히는 정의를 존재론적으로 해명함에 있어서 정의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힘도 동시에 다루며 그것들 사이의 관계도 분석한다. 그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를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는 정의의 근본적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변형적 정의’ 혹은 ‘창조적 정의’라는 독자적인 기독교적 정의의 이념을 전개한다.<sup>4)</sup>

기존의 정의를 초극하여 그것을 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것은 무엇인가? 톨리히는 그것을 기독교의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파악한다. 톨리히에 의하면, 사랑은 창조적 정의를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을 행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은 ‘듣는 것’, ‘주는 것’, ‘용서하는 것’이다.<sup>5)</sup> “사랑은 구체적 상황을 듣는다. 추상적 정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가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가페는 상황의 구체적 요구-그 여건과 가능한 결과, 개입된 사람들의 내적 상태, 그들의 숨은 동기, 그들의 제한성에서 오는 콤플렉스,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망과 불안-에 대한 관계가 있어서 작용한다.”<sup>6)</sup> 사랑이야말로 기존의 비례적 정의의 한계를 넘어 ‘창조적 정의’로 나

2) 크리스찬 아카데미, 『정의의 철학』, 영학출판사, 1978, 236쪽.

3)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199-220쪽.

4) 자세한 것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01-207쪽 참조.

5) Tillich, P.,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 84;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07쪽 재인용.

6) Tillich, P., *Morality and Beyond*, New York: Harper & Row, 1963, p. 42; 크리스

아가게 하는 것이다.

니버의 정의론도 큰 틀에서는 톨리히의 정의론과 다르지 않다. 니버는 힘의 균형에 근거한 사회정의의 이론을 주장한다.<sup>7)</sup> 다시 말해, 힘의 균형을 토대로 해서 비로소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정의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도덕이나 사랑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힘의 균형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작용해서 보다 높고 보다 깊은 정의를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힘의 균형 없이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부정의한 관계로 떨어지고 말 것이요, 사랑은 그 부정의를 가려 주는 스크린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sup>8)</sup> 니버는 힘의 균형에 의한 사회정의 실현에 도덕과 사랑이 역할을 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힘의 균형에 역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도덕도 사랑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니버의 사회정의론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앞에서 톨리히가 정의를 사랑과 관련시켜서 어떻게 변혁적 정의, 창조적 정의를 전개하는지를 보았듯이, 니버 역시 정의를 아가페의 사랑과 관계시켜서 정의가 고정된 체제가 아니라 부단히 상승하는 역동적 과정임을 주장한다. 니버에 의하면, 기독교의 아가페의 사랑은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는 그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가 없는 생의 궁극적인 초월적 원리이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는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는 그대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의 모든 도덕적 성취는 사랑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사랑의 원리가 초월적인 이념적 원리이면서도 현실의 모든 상대적인 도덕적 성취의 근거인 것을 니버는 사랑의 ‘불가능한 윤리적 이념의 적합성’(the relevance of an impossible ethical ideal)이라고 부른다.<sup>9)</sup> 사랑의 이념이 현실의 도덕

찬 아카데미, 앞의 책, 207쪽 재인용.

7) 자세한 것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51-219쪽 참조.

8) Niebuhr, R.,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ed. by Harry R. Davis and Robert C. Goo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p. 107;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17쪽 재인용.

9) Niebuhr, 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p. 97;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18쪽 재인용.

적 성취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니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의 이념의 최종적 높음은 상식의 도덕적 규범을 심판하는 동시에 성취하는데, 이 이념은 모든 도덕적 열망과 성취 속에 포함되어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사랑의 이념이 현실적 도덕의 성취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니버는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이념은 현실에 있어서의 정의의 상대적인 현실을 사랑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심판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랑의 이념으로 향해서 부단히 보다 높게 끌어올린다.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대한 역사적 정의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은 변증법적인 관계이다. 사랑은 역사 속에 있어서의 정의의 성취의 완성인 동시에 부정이다. 혹은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역사에 있어서의 정의의 성취는 무한하게 높이 상승해서 보다 완전한 사랑과 형제애에 있어서 그 완성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또 모든 새로운 수준의 성취는 완전한 사랑에 위배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sup>11)</sup>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이념은 정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한편에 있어서는 역사적 정의를 완전한 사랑의 이념에 모순되는 것으로 심판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역사적 정의를 계속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 정의의 현실을 하나의 역동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렇게 역동적인 상승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의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기능이다. 이것을 니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그러한 정의의 실현이 사랑의 이념에 대한 모순과 근사적 접근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더 충분히 이해한다면 역사적 정의의 보다 높은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sup>12)</sup>

이와 같이 우리는 톨리히와 니버의 기독교적 정의론에서 사랑의 우위론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 우위론은 ‘사랑 개념의 비대화’에 기초하고 있다. 정의의 원형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분적 정의, 즉 배분적 정의에 고정시켜두고 사랑의 개념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바디우의 사랑 개념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

10) *Ibid.* pp. 98-99;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18쪽 재인용.

11) Niebuhr, 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3, p. 246;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19쪽 재인용.

12) *Ibid.* pp. 246-247; 크리스찬 아카데미, 앞의 책, 219쪽 재인용.

할 수 있다.<sup>13)</sup> 법과 정의의 무자비성과 냉정함에 대해 사랑, 용서, 자비 등의 개념을 끌어들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정의론’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대부분 사랑에 대한 언급 없이 ‘정의’야말로 의문의 여지없이 독자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최고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에서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서의 정의는 완전한 덕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조건적으로는 아니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렇다. 그리하여 정의는 가끔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이라 생각되며, 또 저녁의 별도 새벽별도 그만큼 놀라운 것은 못 된다. 그래서 ‘정의 속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 있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덕의 활용이기 때문에 충만한 의미에 있어서의 완전한 덕이다.”<sup>14)</sup>

‘정의’는 ‘완전한 덕’으로 묘사된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완전한 덕으로서 일반적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톨리히와 니버가 비판하는 부분적 덕으로서 특수적 정의, 즉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 점에서 일반적 정의의 문제를 배제하고, 부분적 덕을 다루는 특수적 정의의 문제에 집착해온 전통적 정의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정의론을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정의야말로 의문의 여지없이 독자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최고원리로 파악된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정의 개념의 비대화’를 야기한다.<sup>15)</sup> 이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찰에서는 정의 이외에 더 고려할만한 다른 요소가

13) 바디우, A., 조재룡 역, 『사랑 예찬』, 길, 2010.

14)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143-145쪽.

15) 추상적이고 엄격한 정의 개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로서 형평 사고를 정의론에 끌어들이는 것도 정의 개념의 비대화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의와 형평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168-170쪽 참조.

없음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현대 정의론의 초석을 놓은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도 크게 볼 때 같은 맥락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사랑 개념의 비대화, 다른 한편에서는 정의 개념의 비대화가 눈에 띈다. 각 개념의 비대화에 이르지 않고 양자의 관계를 이완하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가? 헤겔은 초기 신학시절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이내 헤겔은 사랑의 원리를 통해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세속화된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랑의 원리가 아닌 새로운 철학적 원리를 찾고자 애쓴다. 헤겔의 인정이론은 그러한 새로운 철학적 원리를 찾는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 Ⅲ. 헤겔의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와 인정 개념의 구조

헤겔의 인정이론을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헤겔의 인정이론은 각 시기마다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는 초기 저작에서의 인정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후기의 저작인 『법철학』에서도 인정이론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후기의 헤겔철학에서도 상호주관성이론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커다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글은 헤겔 『법철학』에서도 상호주관성이론이 여전히 유효하며 잘 구조화되어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하에서는 헤겔의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와 호네프가 재구성하고 있는 인정이론의 개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헤겔의 인정이론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정의의

16) 롤즈, J.,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17) 샌델, M.,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관계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헤겔의 인정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악셀 호네트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헤겔의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와 호네트가 재구성한 인정 개념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헤겔이 바라보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호네트는 『인정투쟁』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정 개념은 실천철학 안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헤겔을 제외한 이전의 어떠한 사상가도 인정원칙 자체를 윤리학의 주춧돌로 삼지는 않았다. 즉 인정 개념은 항상 다른 개념들에 가려서 단지 간접적인 의미만을 지녔다. 이런 점에서 헤겔은 고독한 선구자였다.”<sup>18)</sup> 인정 개념의 고독한 선구자인 헤겔을 현대로 다시 불러온 것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사회 및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년간 일련의 정치적 논쟁과 사회운동이 등장함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 인정 개념의 다양한 의미 내용은 각각 특수한 도덕적 관점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인정 개념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어떤 통일적 뿌리를 갖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인정 형태 각각의 토대가 되는 도덕적 태도의 근거를 밝히는 문제이기도 하다.”<sup>19)</sup>

이어서 호네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오늘날만큼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나는 규범적 사회이론을 위해 청년 헤겔의 인정 모델을 풍부하게 하여 이미 지적된 경향에 대응하려고 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회운동들이 차츰 다양한 인정 범주를 통해 드러난 도덕적 어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헤겔이 제안했던 구별에 따라 인정이라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덕과 인정의 관계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관계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다양한 인정관계가 어떤 형태의 다양한

18) 호네트, A., 문성훈 외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7쪽.

19) 호네트, 앞의 책, 7-9쪽.

도덕적 의무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sup>20)</sup>

호네트의 『인정투쟁』은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연구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인정이론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밝힌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up>21)</sup> 호네트는 헤겔의 인정이론이 취하고 있는 사회철학적 토대를 철저히 파고들지는 않는다.<sup>22)</sup>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헤겔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를 살펴본 후에 다시금 호네트의 『인정투쟁』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의 인정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헤겔의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를 파악하려면, 헤겔이 근대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철학적 토대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헤겔의 자연법 비판에서 잘 드러난다.<sup>23)</sup> 헤겔은 사회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 자연법 전통이 묶여 있던 원자론적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고 믿었다.

헤겔은 근대 자연법에 대한 두 가지 이해방식, 즉 경험적 연구방식과 형식적 연구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시 말해 경험적 자연법과 형식적 자연법 둘 다 ‘개별 존재’를 최초이자 최고의 범주로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경험적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관한 가상적이고 인간학적 규정에서 출발하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보충전제를 통해 사회적 공동생활의 이성적 조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의 이론에는 ‘자연적’ 인간 행위양식을 단지 개인들의 고립적 행위 수행의 결과로 간주하고, 이러한 개인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의 형식들을 마치 외부에서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원자론적인 가정들이 그 바탕에 깔

20) 호네트, 앞의 책, 10쪽. 호네트는 『인정투쟁』에서 인정이론의 구조를 더 밝히지 않고, 인정무시의 제 형태와 인정투쟁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21)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더 근원적인 연구로는 루드비히 쾨의 저서가 있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인용을 하지 않았다. Siep, L., *Anerkennung als Prinzip der praktischen Philosophie. Untersuchungen zu Hegels Jenaer Philosophie des Geistes*, Freiburg/München, 1974.

22) 『인정투쟁』에서 호네트는 후기 헤겔에게서는 상호주관성의 이론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인륜성의 체계』와 『실재철학』 이후의 헤겔 저작에서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호네트의 최근 저작에서는 초기의 자신의 입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헤겔 후기저작에서도 인정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호네트, A., 이 행남 역, 『비규정성의 고통: 헤겔의 『법철학』을 되살려내기』, 그린비, 2017 참조.

23) 헤겔, G. W. F., 김준수 역, 『자연법』, 한길사, 2015.

려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 자연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형식적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실천이성이라는 선형적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칸트와 피히테가 제시했던 이론들 속에서 이러한 원자론적 가정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은, 인륜적 행위 일반을 인간 본성의 모든 경험적 충동과 욕구가 제거된 이성적 활동의 결과일 뿐이라고 보는 부분이다. 여기서도 역시 인간 본성은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인, ‘비인륜적’ 성향의 집결체로 간주되며, 주체들은 이러한 내부의 성향을 억압하는 방식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인륜적, 공동체적 입장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근대 자연법의 두 가지 이해방식은 그 기본 개념에서 서로 고립된 주체의 존재를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자연적 토대로 전제하는 원자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의 인륜적 통일 상태가 이러한 자연적 토대에서부터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연적 토대 외부의 ‘타자 그리고 낯선 어떤 것’을 통해 보충되어야 했다. 헤겔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즉 근대 자연법에서는 ‘인간 공동체’가 ‘다수의 연합’이라는 추상적 모델에 따라, 즉 고립된 개별 주체들의 연관관계로 사고될 수 있을 뿐 인륜적 통일체의 모델에 따라 사고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인륜적 총체성의 상태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헤겔의 정치철학에서 제시된다. 만약 근대 사회철학이 원자론적 가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의 사회 공동체 형태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이 정치철학적 이론 형성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새로운 기본개념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사회연대적 인정을 통해 이들의 인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조직의 형성을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주적 수단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헤겔의 인정이론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나 시기 헤겔의 정치철학적 사고는 바로 이러한 질문이 야기하는 체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헤겔이 인간 정신 논리의 발생 체계라는 틀 속에서 제안한 다양한 시도는 모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되어 있다. 철학적 사회이론의 출발점은 고립적 주체들의 행위가 아니라 주체들을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틀인 인륜적 결합관계이

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자론적 사회이론과 달리 여기서는 상호주관적 공동 생활 형태를 인간의 사회화를 위한 일종의 자연적 토대로 가정한다. 여기서 헤겔은 폴리스에서 완전한 실현에 도달하는 공동체 관계가 일종의 기체(ein Substrat)처럼 인간의 본성 속에 놓여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분명하게 따른다. 헤겔은 이미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상호주관적 의무가 마치 일종의 자연적 조건인 양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가 설명해야 할 것은 공동체 형성 메커니즘의 기원이 아니라, 초기의 사회 공동체 형태들이 더 포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로 변화하고 확대되는 과정이다. 헤겔은 이것을 교양 및 형성의 과정(Bildungsprozess), 즉 인정으로 파악한다.

헤겔은 인륜적 본성이 자신의 진정한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을 반복적 부정의 과정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윤리적 관계들은 차츰 기존의 일면화와 특수화에서 벗어나게 된다. 헤겔에 따르면, 인륜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연적 초기 단계를 넘어서게 하고, 파괴된 균형의 재통합을 통해 결국 보편성과 특수성의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차이의 실존(Existenz von Differenz)이다.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인간 정신의 역사는 일종의 감추어져 있는 것이자 아직 전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연적 윤리성 속에 이미 놓여 있는 도덕적 잠재력이 투쟁을 통해 보편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헤겔에게는 부정적인 것 또는 주관적인 것의 발전적 지양으로서의 ‘인륜성의 생성’(Werden der Sittlichkeit)이라는 표현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보면 실존하는 차이라는 형식 속에서 최초의 사회적 실천구조를 갖게 되는 아직 전개되지 않은 인륜성의 잠재력이 어떠한 성질의 것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글은 이러한 잠재력을 차츰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반복적 부정의 과정이 어떠한 사회적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헤겔은 필연적으로 특수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최초의 사회화 단계가 갖는 규범적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로부터 등장하는 공동체적 결속관계의 성장과정이 동시에 개인의 자유의 증대과정으로 결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사적 ‘인륜성의 생성’ 과정을 사회화와 개인화의 상호

침투로 파악할 수 있을 때에만 그 결과로 모든 개인의 특수성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 형태도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예나 시기의 헤겔은 이처럼 어려운 과제의 설정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할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헤겔이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발견한 것은, 그가 피히테의 인정이론을 변형, 해석함과 동시에 흄스의 투쟁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부터이다.<sup>24)</sup>

그렇다면 헤겔의 인정이론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네트는 헤겔의 인정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합의론적인 의사소통이론을 전개하는 자신의 스승 하버마스와는 달리, 호네트는 『인정투쟁』에서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을 전개하고자 애쓴다. 호네트의 인정투쟁 테제의 핵심은 사회적 투쟁이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호네트가 말하는 ‘인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 즉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다.<sup>25)</sup> 예나 초기의 헤겔철학에 기초하여 호네트는 인정 개념을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한다.

“첫째, 상호인정관계는 ‘사랑’(Liebe)이라는 형태 속에 있다. 사랑을 통해 그 당사자들은 정서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인정되며, 사랑을 통해 이 욕구 또한 충족된다. 둘째, 상호인정관계는 동등한 ‘권리’(Recht)의 인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자주적이고 도덕적 판단능력이 있는 존재로 인정된다. 셋째로 사회적 ‘연대’(Solidarität)이다. 여기서 각 개인은 자기만의 특수한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인정을 통해 각 개인은 비로소 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다.”<sup>26)</sup> 이를 호네트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sup>27)</sup>

24)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Siep, 앞의 책 참조.

25) 호네트, 앞의 책, 15쪽.

26) 호네트, 앞의 책, 15-16쪽.

27) 호네트, 앞의 책, 68쪽. 여기에서 ‘권리’ 개념은 ‘정의’로 치환해도 같은 내용과 의미를 가진다.

인정대상 인정방식	개인 구체적 욕구 konkrete Bedürfnis	인격체 형식적 자율성 formelle Autonomie	주체 개인적 특수성 individuelle Besonderheit
직관 (정서적)	가족 (사랑)		
개념 (인지적)		시민사회 (권리/정의)	
지적 직관			국가 (연대)

호네프트는 이러한 도식을 주로 『인륜성의 체계』를 분석하면서 “청년 헤겔의 생각을 다소 무리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얻어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sup>28)</sup> 실제 이러한 도식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헤겔의 『법철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헤겔은 초기의 저작에서부터 후기의 저작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정을 교양 및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정이론은 헤겔 『법철학』 제3부 ‘인륜성’에서 잘 나타난다. 『법철학』 제3부는 다시금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제목을 붙인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9)</sup>

헤겔은 『법철학』에서 이들 세 개의 인륜적 공동체를 전개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인륜’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sup>30)</sup> 인륜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주체적 의지와 객관적인 법, 즉 보편적 의지와와의 통일을 뜻한다. 헤겔은 이 인륜을 도덕성의 입장에서 추상적인 선(善)이 개개인의 자기의식 속에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상태, 혹은 자기의식이 인륜적 공동체를

28) 호네프트, 앞의 책, 348쪽.

29)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개괄적인 입문서로는 다음의 책이 있다. 꼬우즈마 따다시외, 윤길순 역, 『헤겔 법철학 입문』, 중원문화, 1984. 물론 이 책에서는 인정이론적 관점에서 헤겔의 『법철학』이 분석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륜성의 구조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0) 헤겔, G. W. F., 임석진 역, 『법철학』, 한길사, 2008. 헤겔 『법철학』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추상법」에서는 인격, 제2부 「도덕성」에서는 주체, 그리고 제3부 「인륜」 중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부르조아, 독일어로는 Bürger), ‘국가’에서는 공민(시투아엔, Citoyen)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스스로의 기초와 목적으로 받들고 있는 상태로 묘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이란 ‘살아있는 선으로서 자유의 이념’이다.<sup>31)</sup>

헤겔에 의하면, 정신은 자기 자신을 객체화하는 움직임이고, 자기 자신의 여러 계기(개별성, 특수성, 보편성)를 통하여 운동한다. 정신은 다음과 같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전개된다. 먼저 개별성과 보편성이 감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상태가 ‘가족’이다. 따라서 가족은 직접적 혹은 자연적인 인륜적 정신이라고 불리운다. 다음에 이 통일이 반성이나 오성에 의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분열된 상태, 다시 말하면 가족적 통일이 상실된 상태가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제각기 독립한 개개인이 형식적 보편성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이성에 의하여 참된 자유가 실현된 상태로서의 ‘국가’이다. 국가에서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참된 통일을 획득하고, 진실로 유기적인 결합을 달성하고 있다고 한다.<sup>32)</sup>

일찌기 헤겔은 『피히테와 셸링 철학체계의 차이』에서 “인격과 다른 인격과의 공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최고의 공동은 최고의 자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엿보이는 공동=자유라는 사고방식은 헤겔의 근본적인 인간관, 나아가 사회관을 구성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인륜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은 자유와 공동이 서로 관계하는 작용의 세 가지 존재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헤겔은 가족의 본질을 ‘사랑’에서 찾는다. “가족은 정신의 직접적인 실체성으로서 정신이 스스로 느끼는 통일, 곧 사랑을 자기 자신의 규정으로 하고 있다.”<sup>33)</sup> 그 때문에 개인은 가족의 단계에서는 개체성의 자기의식을 이와 같은 통일 속에서 가지게 됨으로써 한낱 독립된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사랑이란 대체로 나와 타자가 하나라는 의식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상태에서 나는 나만으로 고립해 있지 않고, 나만의 고립존재를 버리고 타자와의 통일을 알게 됨으로써 나의 자기의식을 획득한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다. 다시

31) 헤겔, 앞의 책, 142절.

32) 헤겔, 앞의 책, 157절.

33) 헤겔, 앞의 책, 158절.

말하면, 자연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인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국가의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통일이 법률로 의식되고, 그 내용은 이성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sup>34)</sup> 이 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서로 다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헤겔은 가족을 무엇보다도 인륜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공동=자유라는 인륜적 원리의 직접적 혹은 자연적인 첫 단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가족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두 인격의 통일을 내용으로 하며, 재산 및 자식에 있어서 이 통일의 실체적 현존재를 갖는다. 가족은 자식이 성장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분할되고, 또한 본질적으로는 인격성의 원리에 의하여 수많은 가족으로 갈라져간다. 이리하여 각 가족은 대체로 독립한 구체적 인격으로서 거동하며, 서로 외면적으로 상호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가족이 서로 관계를 맺는 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성립한다. 가족의 통일에서 하나로 동여매어져 있었던 인륜적 이념의 두 계기, 곧 개별성과 보편성이 제각기 독립된 실재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를 차이(Differenz)의 단계라고도 부른다.<sup>35)</sup>

헤겔에 의하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은 자립적인 개개인이고, 이 개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욕구이다. 개인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욕구의 충족이고, 그에게 그밖에 모든 것은 무(無)이다. 이러한 연유로 시민사회는 특수성을 첫 번째 원리로 한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에 보편성의 원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망에 끼어들지 않으면 자기욕구조차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 개인은 사회적 연관을 통하여, 또한 그와 더불어 경제적 법칙이나 법률적 권리라고 하는 보편성의 형식인 다른 한 쪽의 원리에 의하여 매개되고 제약됨으로써만 비로소 자기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시민사회는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개개인의 ‘전면적인 상호의존성의 체계’로 나타난다.<sup>36)</sup>

그러나 헤겔에 의하면, 문제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시민사회에서 제각기

34) 헤겔, 앞의 책, 158절 보충설명.

35) 헤겔, 앞의 책, 181절.

36) 헤겔, 앞의 책, 183절.



자립하여 있고 ‘인륜적 통일성’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 있다.<sup>37)</sup> “이 분열태에서는 이념이 특수성과 보편성의 두 계기에 각각 독자적인 현존재를 부여한다.”<sup>38)</sup> 특히 특수성은 모든 면에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 우연적 자의, 주관적 애호를 자유분방하게 만족시키려 한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방탕한 향락과 비참한 빈곤의 광경을 드러내고 아울러 필연적 욕구나 우연적 욕구 어느 쪽에도 공통되는 자연적 인륜적인 퇴폐의 광경을 드러내는 형국이 된다.<sup>39)</sup>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사회를 인륜의 상실태라고 부른다. 시민사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천민’의 출현이라는 빈곤문제이다.<sup>40)</sup>

인륜의 세 가지 존재 양식 중 마지막이 국가이다. 가족에서는 인륜적 이념의 두 계기, 곧 보편성과 개별성이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 통일은 곧 양극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시민사회의 단계로 이르러간다. 그러나 바야흐로 국가에서 두 계기의 즉자적 통일(가족)과 대자적 분열(시민사회)을 거친 참된 즉대자적인 통일이 실현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실태이다.”<sup>41)</sup>

헤겔은 국가론의 도입부분에서 먼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혼동을 경고한다. 만일 국가의 사명이 소유와 인격의 안전 및 보호에 있다고 하게 되면, 개인의 이익만이 그 자신들이 합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국가의 성원이 되는 여부는 개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하지만 헤겔에 의하면 소유와 인격의 안전 및 보호는 시민사회의 사명이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이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이므로 개인은 국가의 일원일 때에만이 그 자신 객관성, 진리성, 인륜성을 지닌다. 합일 그 자체가 그 자신 개개인의 참된 내용이며, 개개인의 사명은 보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sup>42)</sup> 합일 그 자체, 바꿔 말하면 연대와 공동성이 인간의 본질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모조리 전체 속으로 매몰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각 개인이

37) 헤겔, 앞의 책, 185절.

38) 헤겔, 앞의 책, 184절.

39) 헤겔, 앞의 책, 185절.

40) 헤겔, 앞의 책, 244절.

41) 헤겔, 앞의 책, 257절.

42) 헤겔, 앞의 책, 258절 주.

자기 자신의 주체성, 자립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것, 공공적인 것을 향한 관심을 한껏 키우고 그 관심을 충분히 의식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헤겔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헤겔의 『법철학』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륜성의 구성에 상응하여 호네프가 재구성한 인정 개념도 이제 그 분명한 체계적 구조를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해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인륜적 관계에 상응하여 그 구성원리로서 각각 사랑, 정의, 연대가 배치된다.

#### IV. 결론: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입장, 헤겔의 인정이론의 철학적 기초, 호네프가 재구성한 인정 개념의 구조, 그리고 헤겔의 『법철학』에서 서술되고 있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인륜의 세 가지 존재양식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가 어떻게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헤겔은 ‘사랑’을 직접적 인륜인 가족의 구성원리로 포착한다. 이것을 오늘날의 이해방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을 구성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 즉 익명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리를 이룬다. 헤겔은 사랑의 원리가 상호의존과 경쟁, 그리고 욕구의 체계 위에 서 있는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원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시민사회에서 각 개인은 자유롭게 평등한 인격체로서 상호의존적인 욕구와 경쟁의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실패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부익부 빈익빈, 즉 양극화의 문제를 이미 헤겔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자신의 정의라는 구성원리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헤겔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독교의 입장과 같이 다시 사랑의 문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의 개념의 비대화라는 전략을

취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구성원리, 즉 더 발전적인 형태로 국가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의 구성원리는 ‘연대’이다. 국가는 가족처럼 친밀하지도 않고, 시민사회처럼 익명의 비친밀성의 영역도 아니다. 국가는 친밀성과 비친밀성의 결합영역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원리도 또한 정의의 원리도 아닌 ‘연대’의 원리를 자신의 구성원리로 삼는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오늘날의 다양한 시도들과는 달리,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는 서로 다른 영역에 기초한 구성원리로서 파악된다. 친밀영역에 타당한 사랑의 원리를 비친밀영역에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비친밀영역에 타당한 정의의 원리를 친밀영역에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친밀영역과 비친밀영역이 서로 겹치고 결합되는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영역에서는 두 원리 중 어느 하나가 타당한 것이 아니라, 두 원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도 변증법적으로 지양된 새로운 구성원리인 연대의 원리를 요청하는 것은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거칠게나마 테제의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헤겔은 인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의 세 형태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각각 사랑, 정의, 연대를 그 구성원리로서 제시한다. 헤겔에게서 사랑과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듯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타당한 영역이 다를 뿐이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고,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에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친밀성의 영역이 파괴되고, 비친밀성의 영역에 사랑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친밀성과 비친밀성이 서로 중첩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경우처럼 사랑의 원리 위에서 있거나 시민사회의 경우처럼 정의의 원리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리인 공동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김준수, 『승인이론』, 용의숲, 2015.
- 꼬우즈마 따다시 외, 윤길순 역, 『헤겔 법철학 입문』, 중원문화, 1984.
- 롤즈, J., 황경식 역, 『정의론』, 이학사, 2003.
- 문성훈, 『인정의 시대』, 사월의책, 2014.
- 바디우, A., 조재룡 역, 『사랑 예찬』, 길, 2010.
- 박주용, 『우리 안의 타자: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현실사, 2003.
- 샌델, M.,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아리스토텔레스, 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4.
- 크리스찬 아카데미, 『정의의 철학』, 영학출판사, 1984.
- 프레이저, N./호네프, A., 김원식 외 역, 『분배냐, 인정이나?』, 사월의책, 2014.
- 헤겔, G. W. F., 임석진 역, 『피히테와 셸링 철학체계의 차이』, 지식산업사, 1989.
- \_\_\_\_\_, 『대논리학』, 벽호, 1997.
- \_\_\_\_\_, 『법철학』, 한길사, 2008.
- 헤겔, G.W.F., 김준수 역, 『자연법』, 한길사, 2015.
- 호네프, A., 문성훈 외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호네프, A., 이형남 역, 『비규정성의 고통: 헤겔의 『법철학』을 되살려내기』, 그린비, 2017.
- Niebuhr, 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3.
- \_\_\_\_\_,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Meridian Books, 1956.
- \_\_\_\_\_, *Reinhold Niebuhr on Politics*, ed. by Harry R. Davis and Robert C. Goo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Siep, L., *Anerkennung als Prinzip der praktischen Philosophie. Untersuchungen zu Hegels Jenaer Philosophie des Geistes*, Freiburg/München, 1974.
- Tillich, P.,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 \_\_\_\_\_, *Morality and Beyond*, New York: Harper & Row, 1963.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Seo, Yunho

The way of approa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We can argue for superiority of love or for superiority of justice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conflicting. We can also argue that we need each other by understanding each other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n oppositional relationship. Hegel, however, sees love and justice as independent constitutive principles valid in different areas and does not regard the two as opposing nor complementary. This can only be understood when the structure of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is properly assum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will be considered mainly in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Key philosophical points of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nd consequences draw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on the basis of the theory will be examined. This can be summarized in the form of a thesis, roughly as follows.

- Hegel presents love, justice and solidarity, that are various forms of recognition, to a family, a civil society and a state, that are three forms of social relations, as their constitutive principles. He does not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as oppositional nor as complementary, that is different from many people's general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 In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love and justice differ in the areas in which they are valid. Love is a valid principle in the intimacy, and justice is a valid principle in non-intimacy. So, if justice and rights are

asserted in intimacy, the area of intimacy is destroyed. Conversely, if love is asserted in non-intimacy, it cannot exercise real influence.

- In the political community such as a state, where intimacy and non-intimacy overlap each other,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s needed as a new constitutive principle, since a state does not stand on the principle of love as in a family nor on the principle of justice as in a civil society.

Key Words : Love, Justice, Solidarity, Honneth, Hegel, Theory of Recognition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